

# 2022 순천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 플로렌스와 순천의 식물



순 천 시  
Suncheon-si



순천문화재단  
CULTURAL FOUNDATION OF SUNGHEON



소우주미디어협동조합



- contents -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 여사와 『한국의 들꽃과 전설』 2P

봄

- 개나리 14P
- 할미꽃 18P
- 물망초 22P
- 각시붓꽃 26P
- 민들레 30P
- 모란 34P
- 호랑가시나무 38P
- 진달래 16P
- 복숭아꽃 20P
- 뱀딸기 24P
- 흰민들레 28P
- 동의나물 32P
- 은방울꽃 36P
- 감나무 40P

여름

- 석류 44P
- 범부채 48P
- 나팔꽃 52P
- 베롱나무 560P
- 산수국 60P
- 금불초 46P
- 흰연꽃 50P
- 상사화 54P
- 구절초 58P
- 수국 62P

가을

- 맨드라미 66P
- 닭의장풀 70P
- 채송화 74P
- 고추꽃 68P
- 물봉선 72P

겨울

- 동백나무 78P

#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 여사와 『한국의 들꽃과 전설』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 여사(이하 플로렌스 여사)는 1887년 켄터키주에서 장로교 목사이자 미시시피 대학교 철학 교수인 윈 헤들스톤과 릴리안 헤들스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야생꽃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직접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이어져 미시시피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1903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는 월드페어 미술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플로렌스 여사가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꽃과 풍경을 살피는 예리한 눈과 세심한 주의력은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 탄생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플로렌스 여사는 남편인 존 커티스 크레인 선교사와 함께 선교를 위해 1913년에 8월에 처음 순천으로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플로렌스 여사가 이미 1912년 11월 8일에 노스미시시피 노회에 선교사로 응시한 후 12월 10일에 개인적으로 한국으로의 임명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여사는 단순히 남편 크레인 선교사를 따라 순천에 온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순천으로 온 것입니다. 이후 광주로 넘



어가 한국어를 배우고 순천으로 돌아온 크레인 부부는 1915년 은성학교(후에 매산학교)에서 교육선교를 시작했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는 모든 사립학교를 통제하려고 했고, 교육과정의 표준화, 일본어 교육 의무화, 종교 교육 금지 등의 개정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맞서 선교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 1916년 6월 은성학교가 폐쇄 조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복교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산학교라는 이름으로 크레인 부부가 다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남편인 크레인 선교사가 교육선교에 집중하는 동안 플로렌스 여사는 매산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매산학교 공예실과 양잠실에서 단추·테이블보·손수건·명주짜기 등도 가르쳤습니다. 크레인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음차하여 구례인(具禮仁, 예와 어짐을 갖춤)이라는 멋진 한국식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순천 매산중학교의 건물 중 하나인 구례인관의 명칭도 크레인 부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플로렌스 여사에게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5년 10월 31일 순천에서 첫째 딸 릴리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17년 순천에서 태어난 딸 엘리자베스 레티셔 크레인이 4개월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레인 선교사의 연년생

동생 폴 새킷 크레인도 열차사고로 한국에서 사망했으며, 둘째 아들 존 커티스 크레인 주니어도 6개월 만에 사망하여 한국에 묻혔습니다. 분신과도 같은 동생, 그리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잃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두 부부는 교육과 선교에 힘쓰면서 학교 운영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교활동에 힘쓴 부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후에 성장해서 다양한 선교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인 폴 크레인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해방 후 순천 애양원과 전주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에 은퇴할 때까지 아버지 존 크레인 커티스의 유산을 잘 이었습니다. 폴의 아내 소피는 의료 사역뿐만 아니라 저술 활동을 통해서도 유산을 남겼는데, 폴은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 생활태도를 온화한 시선으로 관찰하여 정리한 Korean Patterns(Seoul: Hollym Corporation, 1967)를 남겼고, 아내 소피는 미국 남장로교 해외 의료선교의 전체 역사를 서술한 A Legacy Remembered : A Century of Medical Missions(Franklin, TN: Providence House Publishers, 1998)를 남겼습니다. 1924년에 태어난 막내 딸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플로렌스라 지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애칭인 보배(Pobai)로 평생 더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플로렌스 여사를 닮아 미술에 비상한 재능을 보였던 보배는 미국에서 장로교 목사 헤펠핑거와 결혼하여 평생 버지니아 주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순천에서 지내는 동안 플로렌스 여사는 순천의 꽃과 풍경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플로렌스 여사는 뛰어난 미술 실력과 식물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살려 순천에 핀 148종의 야생화와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직접 그렸습니다. 거기다가 순천의 야생화를 관찰하고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를 단순한 화집으로 남기지 않고, 야생화에 얽힌 전설과 당시의 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여 자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들꽃과 전설』입니다. 『한국의 들꽃과 전설』은 1931년 일본 산세이도 출판사가 먼저 출간 하였고, 이후 미국 맥밀런 출판사가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 1933년 10월 19일부터 3일간 콜럼비아대학 조선도서관후원회의 주관으로 플로렌스 여사의 그림 전시회가 서울 동아일보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전시를 매일 보도와 광고를 통해 홍보했고 특히 1933년 10월 21일자 조간에는 플로렌스 여사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로 해설한 『한국의 들꽃과 전설』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후 플로렌스 여사는 평양, 뉴욕, 뉴올리언스 등 다양한 곳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1973년 테네시 주에서 사망할 때까지 수백 장의 풍경화와 천 개가 넘는 꽃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활동과 집필활동을 한 1926년

부터 1937년까지의 10년은 크레인 부부의 선교사역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선교사는 1937년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하여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 크레인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년 동안 박사후(post-doctorate)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렇게 더욱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희망을 가지고 1939년 가을에 한국으로 복귀한 크레인 부부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도, 강단도, 학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장로교 계열의 많은 학교들이 무기한 폐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문제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크레인 선교사는 이 문제로 순천노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귀환 후 크레인 부부가 일한 현장은 평양외국인학교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1940년 10월, 일본과의 전쟁 기운이 무르익자 “지체 없이 피난하라”는 선교회에 내려진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는 매리포사호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남은 7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크레인 선교사였습니다. 일제의 압박과 미국에서 오는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크레인 선교사는 상하이로 거쳐 미국행 ‘프레지던트 클리블랜드’호에 탑승하여 미시시피로 돌아갔습니다. 두 부부는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지만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

고 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자 1년 뒤인 194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황폐화된 순천지부 전반을 복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크레인 선교사는 순천고등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매산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순천에서 순회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크레인 부부는 생애 전반에 걸쳐 순천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플로렌스 여사는 193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한국 야생화 도감을 펴낸 선구적 인물 중 하나로 꽃과 자연에 대한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연안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처음부터 순천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플로렌스 여사가 갖고 있던 야생화와 식물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지금 순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컬러링 북은 『한국의 들꽃과 전설』과 그 저자인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 여사를 조명하고 오늘날 순천의 사람들이 순천의 야생화와 들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칠해보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사가 표기한 꽃의 이름을 보면서 오늘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꽃이 당시에는 어떻게 불렸는지 보는 것도 이 컬러링 북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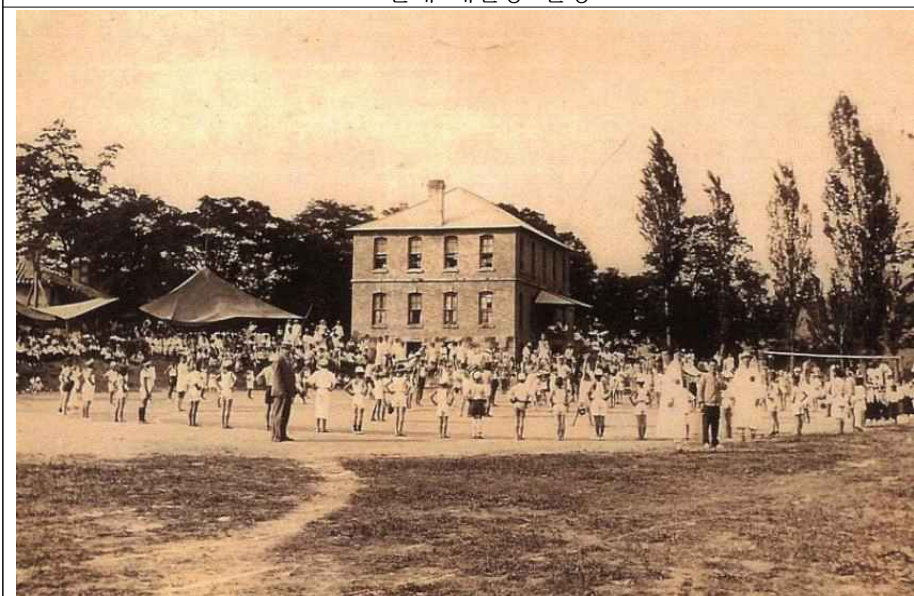
1940년대 매산학교 (조지와츠 남학교)



과거 조지와츠 기념관(현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1920년대 매산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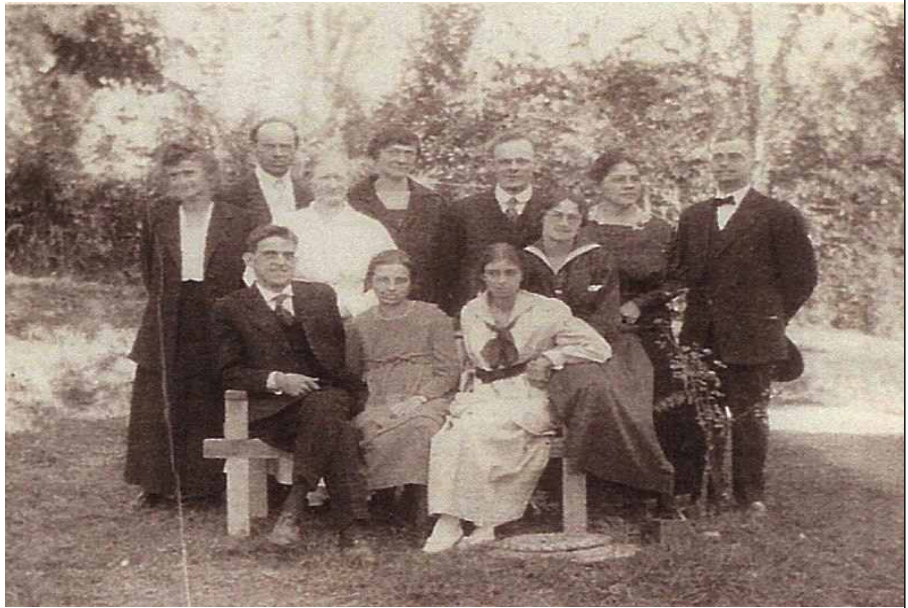


1930년대 순천 매산학교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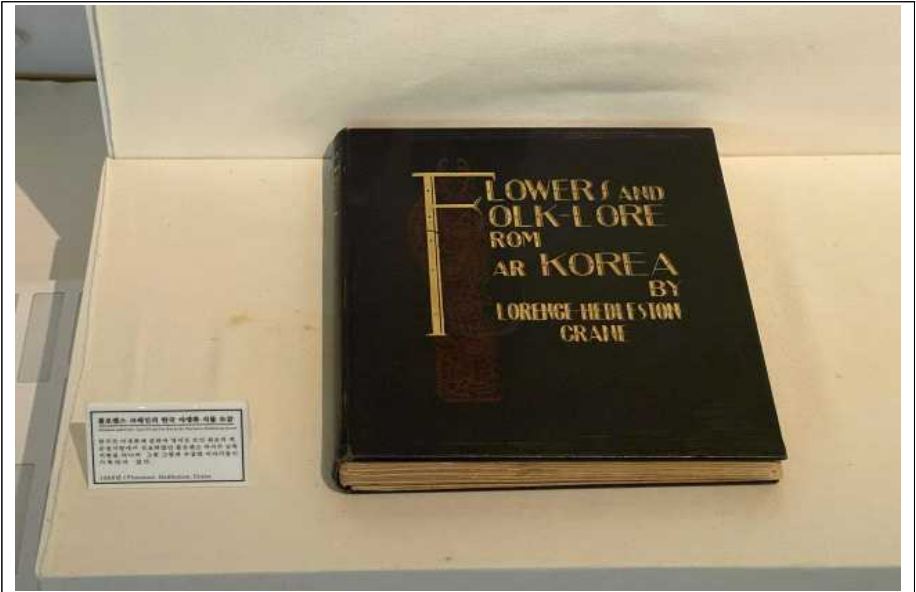


크레인 선교사 가족 (존 커티스 크레인,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 폴 스캐킷 크레인(남동생), 폴 실즈 크레인(아들))



1920년대 선교사들





플로렌스 크레인의 한국 야생화 식물도감



매산등 일대 플로렌스 크레인의 식물 그림 벽화



## 봄

1. 개나리
2. 진달래
3. 할미꽃
4. 복숭아
5. 물망초
6. 뱀딸기
7. 각시붓꽃
8. 흰민들레
9. 민들레
10. 동의나물
11. 모란
12. 은방울꽃
13. 호랑가시나무
14. 감

# 1. 개나리<sup>1)</sup>

*Forsythia koreana*

개화시기 3~4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사랑의 기쁨

신이화라고도 하며, 북한에서는 개나리꽃나무라고 부른다. 순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산기슭 양지에서 많이 자란다. 개나리꽃으로 담근 술을 개나리주라 하고, 햇볕에 말린 열매를 술에 담가 저장한 것을 연교주라 한다. 개나리꽃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설화가 있다. 옛날 한 스님이 부자집에 시주를 청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 정성껏 시주를 했는데, 시주를 받고 스님이 짚으로 떡동구미를 하나 만들어주고 사라졌다. 스님이 가고 나니 떡동구미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듬해 또 스님이 나타나 부자에게 시주를 청하였다. 이웃의 소식을 들은 부자가 이번에는 쌀을 시주하자 스님이 떡동구미를 만들어주고 사라졌다. 부자가 신이나 떡동구미를 살펴보자 그 안에는 쌀 대신 개똥만 가득했다. 부자가 놀라 그것을 땅 밑에 묻었는데 거기서 개나리꽃이 피게 되었다고 한다.



1) 원문은 '신이화'로 표기



## 2. 진달래<sup>2)</sup>

*Rhododendron mucronulatum*

개화시기 3~4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기대, 희망, 달성, 깊은 정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자생종이다. 순천의 조계산 등에서 볼 수 있다. 꽃은 이른 봄에 꽃전을 만들어 먹거나 진달래술(두견주)을 담그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진달래꽃을 영산홍(迎山紅)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해수·기관지염·감기로 인한 두통에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이 있다. 진달래에 얽힌 전설로 천신 두우의 이야기가 있다. 옛날 중국에는 두우라는 천신이 있었는데 인간을 사랑한 두우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신망을 받아 촉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그러나 두우가 다스리던 촉나라는 전쟁에서 패망했고 억울하게 죽은 두우의 녀은 두견새가 되었다. 이 두견새가 울어서 토한 피가 떨어져 붉게 물든 꽃이 진달래(두견화)라고 한다. 두견새는 이처럼 붉은 진달래만 보면 슬피 운다고 한다.



2) 원문은 '두견화'로 표기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label or caption.

### 3.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개화시기	4~5월	분포	한국·중국북동부 등지	꽃말	슬픈 추억, 사랑의 굴레
------	------	----	----------------	----	------------------

산과 들판의 양지쪽에서 자란다. 송광사, 낙안읍성 등에서 볼 수 있다. 할미꽃은 이름처럼 할머니에 대한 설화가 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혼자 딸 셋을 키워 시집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늙어 혼자 살기가 어려워지자 큰딸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를 반기던 큰딸이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에게 싫은 기색을 보였다. 이후 할머니가 둘째 딸에게 찾아가더니 그곳에서도 같은 취급을 당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에게 가서 딸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셋째가 문밖에 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셋째 딸이 알아보기를 기다렸으나 셋째 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 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그대로 죽고 말았다. 그 뒤에 할머니가 죽은 자리에서 할미꽃이 피었다고 한다.







#### 4. 복숭아

*Prunus persica*

개화시기 4~5월 분포 한국·중국 등지 꽃말 매력, 유혹, 용서, 희망

복사나무라고도 하며 꽃은 연한 홍색으로 4~5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복숭아 열매는 8~9월에 익는다. 순천의 월등 복숭아가 유명하다. 복숭아의 원산지는 중국 화북의 산시성과 간쑤성의 해발 600~2,000m의 고원지대라고 한다. 복숭아는 꽃, 열매, 껍질, 씨앗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약재나 식재료로 쓰였다. 꽃으로는 복숭아꽃차를 끓여 먹으며, 복숭아과실은 맛과 향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예로부터 복숭아 나무의 가지는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꽃과 열매는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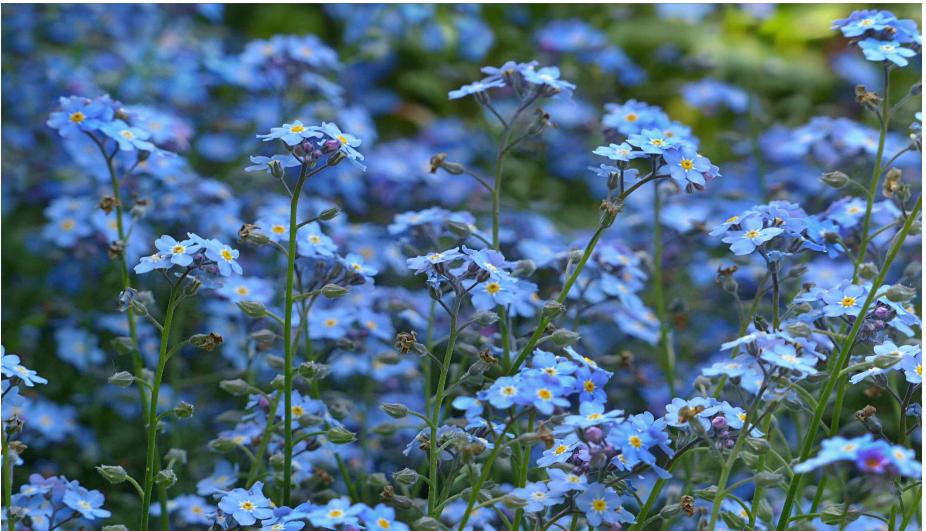


## 5. 물망초

*Myosotis scorpioides*

개화시기 4~6월 분포 전세계 온대지역 꽃말 진실한 사랑

유럽이 원산지이고 관상용으로 심는다. 물망초란 영어의 'forget me not'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순천만에서 물망초를 볼 수 있다. 독일의 전설에 따르면 강 가운데 섬에서 자라는 물망초를 애인에게 꺾어주기 위해 한 청년이 그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이 물망초를 꺾어 애인에게 돌아가는 순간 급류에 휘말렸고, 청년은 사라지고 물망초만 휩쓸려 애인에게 남았다고 한다. 남겨진 그녀는 사라진 청년을 생각하면서 한평생 물망초를 몸에 지니고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 때문에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와 '진실한 사랑'이 되었다고 한다.





## 6.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개화시기 4~5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허영심

전국의 풀밭 또는 숲 가장자리에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우리나라 자생종이며 봉화산, 조계산 등에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 인디아(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분포하고 있다. 뱀딸기라는 이름에 대한 설화가 있는데, 옛날 옛적에 뱀 한 마리가 다쳐서 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다른 뱀 하나가 뱀딸기풀을 씹어 상처 난 뱀에게 발라주니 상처가 씻은 듯이 낫고 멀쩡하게 기어갔다고 한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이 풀의 이름을 뱀딸기(사매蛇每)라고 부른 것이 뱀딸기로 굳혀졌다는 말이 있다. 뱀이 먹는 딸기여서 뱀딸기가 되었다거나, 덩굴 모양이 뱀 같아서 뱀딸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영어 이름은 가짜 딸기(false strawberry)이다.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the name of the plant or provide a description.

## 7. 각시붓꽃<sup>3)</sup>

*Iris rossii*

개화시기 4~5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기쁜 소식

전국의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순천 조계산, 봉화산 등에서 볼 수 있다. 각시붓꽃에 관한 설화 중 신라의 유명한 화랑인 관창의 이야기가 있다. 어릴 때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던 관창은 화랑이 되었는데, 어린 관창에게는 무용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그러나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일어났고, 관창도 화랑으로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관창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무용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관창을 그리워하며 앓다가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관창과 무용을 나란히 묻어주었고 이듬해 무용의 무덤에서 꽃이 피어났다. 꽃은 무용의 자태를 닮았고, 잊은 관창이 지니고 있던 칼과 닮았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이 꽃을 각시붓꽃이라 불렀다고 한다.



3) 원문은 '산란초'로 표기





## 8. 흰민들레<sup>4)</sup>

*Taraxacum coreanum*

개화시기	4~6월	분포	한국·중국 동북부 등지	꽃말	감사하는 마음, 행복
------	------	----	-----------------	----	----------------

산지 숲 가장자리와 들의 양지바른 경작지 및 민가 주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조계산, 송광사 등에서 볼 수 있다. 어린잎을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꽃은 차로 우려먹거나 약재로 쓰인다. 노란 민들레는 꽃받침이 뒤로 젖혀 있는 반면에 흰민들레는 꽃받침이 위로 향하고 있다. 예로부터 먹거리와 민간약으로 널리 사용되며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민초라 불리기도 했다. 민들레에는 왕과 관련된 설화가 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단 한번만 명령할 수 있는 왕이 있었다고 한다. 왕이 명령하고 나면 나라의 정치는 신하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왕은 하늘의 별을 보며 신하들에게 저 별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했다. 어떤 신하도 왕의 명령을 해내지 못했을 때 하늘에서 저절로 별이 떨어졌고 그 자리에 민들레가 피었다고 한다.



4) 원문은 '고들뱅이꽃'으로 표기



## 9. 민들레

*Taraxacum mongolicum*

개화시기 4~5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행복

들판에서 별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다. 꽃은 4~5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잎과 길이가 비슷한 꽃대 끝에 두상화가 1개 달린다. 꽃대에는 흰색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두상화 밑에만 털이 남는다. 봄에 어린잎을 나물로 먹는다. 한방에서는 꽃피기 전의 식물체를 포공영(蒲公英)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열로 인한 종창·유방염·인후염·맹장염·복막염·급성간염·황달에 효과가 있으며, 열로 인해 소변을 못 보는 증세에도 사용한다. 민들레에는 슬픈 여인과 관련된 설화가 있다. 한 여인이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끝내 남편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 여인이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민들레였다고 한다.





## 10. 동의나물<sup>5)</sup>

*Caltha palustris*

개화시기 4~5월 분포 한국북반구온대지역 꽃말 다가올 행복

미나리아재비목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며 동의나물, 입금화라고도 한다. 송광사, 조계산 등에서 볼 수 있다. 산 속 습기 많은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매끈하고, 높이 30~60cm에 이르며, 연약하기 때문에 아래쪽은 옆으로 비스듬히 눕기도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자라며 북반구 온대지역에 폭넓게 분포한다. 나물이라 이름 붙여져 있으나 독이 있어 함부로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곰취와 비슷한데 곰취는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 모양이 있으며 동의나물은 톱니가 둔하고 둥글며 반들거린다. 한방에서는 수염뿌리, 잎, 줄기를 약용으로 쓰기도 한다.



5) 원문은 '나귀발꽃'으로 표기





## 11. 모란

*Paeonia suffruticosa*

개화시기 5월      분 포 한국·중국 등지      꽃 말 부귀

목단(牧丹)이라고도 한다. 송광사나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볼 수 있다. 가지가 굵고 털이 없다. 꽃은 5월에 홍색으로 피고 지름 15cm 이상이며 꽃 턱이 주머니처럼 되어 씨방을 둘러싼다. 모란에는 삼국사기에 실린 선덕여왕과 관련된 설화가 있다. 과거 당나라에서 붉은색, 자주색, 흰색으로 그린 모란꽃과 그 씨를 보내왔다고 한다. 선덕여왕 공주시절에 그것을 보고 이 꽃이 아름답기는 하나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씨를 심고 꽃이 피기를 기다렸는데 과연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알았냐고 선덕여왕에게 묻자 꽃을 그렸으나 나비와 벌을 그리지 않았기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다.







## 12. 은방울꽃<sup>6)</sup>

*Convallaria keiskei*

개화시기 5~6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동시베리아 등지 꽃말 순결, 다시 찾은 행복

오월화·녹령초·등구리아삭 등이라고도 한다. 산지에서 자란다. 꽃은 5~6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종 모양이다. 관상초로 심으며 어린잎은 식용한다. 향기가 은은하여 고급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도 한다. 성모 마리아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청아함의 상징으로도 유명하다. 유럽에서는 5월의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태양의 신 아폴론이 은방울꽃을 마치 비단처럼 깔아 그의 요정들이 부드럽고 향긋한 은방울꽃만 밟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



6) 원문은 '비비추'로 표기



### 13. 호랑가시나무<sup>7)</sup>

*Ilex cornuta*

개화시기	4~5월 <sup>8)</sup>	분포	한국·중국	꽃말	가정의 행복,
			중부이남 등지		평화

호랑가시나무의 높이는 2~3m이다. 잎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시로 되어있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으로 윤이 나고, 뒷면은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다. 꽃은 4~5월에 암수딴그루에 피고, 열매인 묘아자는 9~10월에 붉게 익는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정원수이며, 많은 종의 원예품종이 있다. 관련된 설화로 우리나라의 남쪽지방에서는 호랑가시나무의 가지를 꺾어 정어리의 머리에 꿰어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다고 한다. 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습속이었는데, 귀신이 잘못 들어오다가는 정어리처럼 눈을 꿰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전해진다.




---

7) 원문은 '묘아자'로 표기

8) 원문은 '12월'로 표기



## 14. 감<sup>9)</sup>

*Diospyros kaki*

**개화시기** 5~6월<sup>10)</sup> **분 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 말** 경의, 자애, 소박

감나무는 순천시의 시목이다. 농촌의 풋풋한 정감이 깃든 나무로 순천 시민의 순후한 인정과 분위기를 나타내며,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서면 등지에 많으며 많은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 높이가 10~15m이다. 꽃은 담황색이고, 새로 자란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5~6월에 핀다. 열매인 감은 품종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10월에 노란빛의 홍색으로 성숙한다. 과육에 반점이 생기는 단감과 반점이 없는 뽕은 감으로 구별하지만 익으면 모두 달다. 우리나라 고유의 감나무는 대부분 뽕은 감나무이고, 단감나무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에서 들어왔다.



9) 원문은 '묘야자'로 표기

10) 원문은 '11월'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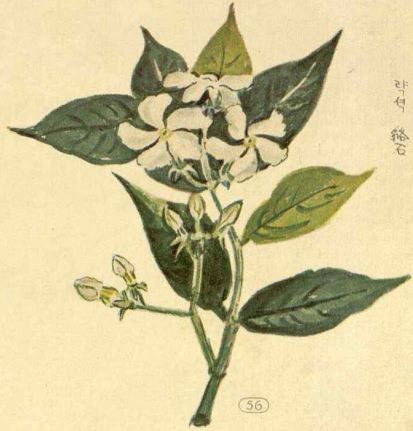
고든대왕이꽃  
蒲公英



문들대왕이꽃  
蒲公英



55



라지  
꽃  
56



비비추

57  
비비추  
57

PLATE X



# 여름

15.석류

16.금불초

17.범부채

18.흰연꽃

19.나팔꽃

20.상사화

21.베롱나무

22.구절초

23.산수국

24.수국

## 15. 석류

*Punica granatum*

개화시기 5~7월 분포 아시아·유럽 동남부 등지 꽃말 원숙한 아름다움

민가 부근이나 정원, 화단에 관상용 및 과수용으로 심어 기르는 낙엽 활엽 작은 큰 키 나무이다. 열매는 붉은색이고 9~10월에 익으면 껍질이 불규칙하게 터져서 씨가 드러난다. 석류에는 마귀할멈과 얽힌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마귀할멈이 있었다. 부처님은 마귀할멈이 아이를 먹는 것을 멈추기 위해 마귀할멈의 딸을 감추었다. 그날로 마귀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딸을 찾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부처님이 다시 마귀할멈에게 딸을 돌려주고 타일렀다. 그리고 아이 대신 먹을 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석류였다. 마귀할멈은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고 한다.





## 16. 금불초<sup>11)</sup>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개화시기 7~9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상큼함

대표적인 여름 꽃 중 하나로 습지에서 자란다. 우리나라 자생 식물로 어린순은 나물 또는 국거리로 식용한다. 노란 꽃 때문에 금으로 만든 부처님이라는 뜻의 금불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지며, 여름에 피는 국화라는 의미로 하국이라고도 한다. 금불초에는 부부와 얽힌 설화가 있다. 옛날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담석으로 인해 사망했고 부인은 남편 생각을 하며 담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아내 혼자 살던 어느 날 금불초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담석이 반쯤 사라져있었다. 아내는 우연히 금불초가 담석을 없애주는 것을 발견했고 이때부터 담석증 환자를 금불초로 치료했다고 한다.



11) 원문은 '배암풀'로 표기



## 17.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개화시기 7~8월 분포 한국·중국·인도 등지 꽃말 꿈, 존경, 정성 어린 사랑

흔히 관상용으로 정원이나 화단에 식재하는 식물이다. 꽃잎은 6개가 나며, 해가지면 꽃잎을 접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펼쳐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호랑이의 얼룩무늬를 닮은 6개의 꽃잎이 마치 부채처럼 펼쳐지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관련된 설화로 장을 보고 고개를 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장을 보고 온 터라 피곤했던 아버지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버지는 잠에 들게 되고, 혼자 남은 어린 아들은 호기심에 숲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사라진 걸 알아채고 숲으로 들어가 아이를 찾았지만 호랑이에게 변을 당한 뒤였다. 이듬 해 여름 그 고개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도중 떨어진 아들의 핏자국 자리마다 호피 무늬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범부채 꽃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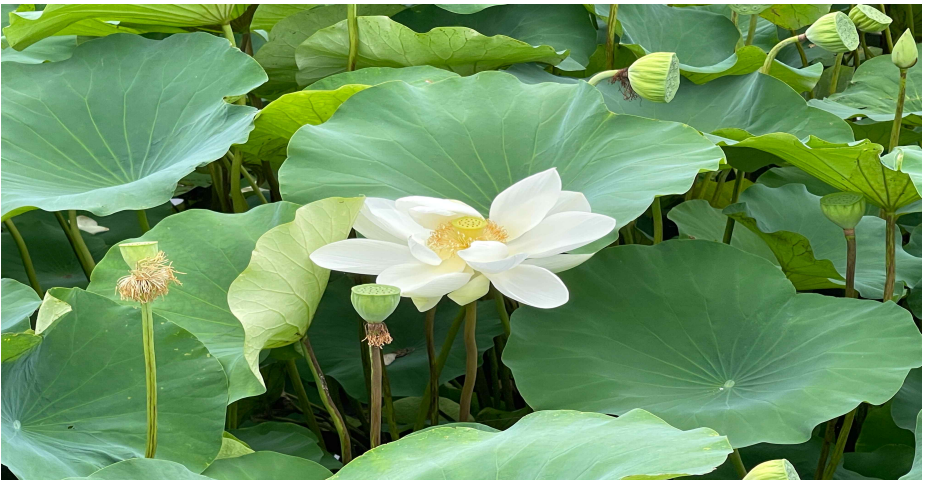


## 18. 흰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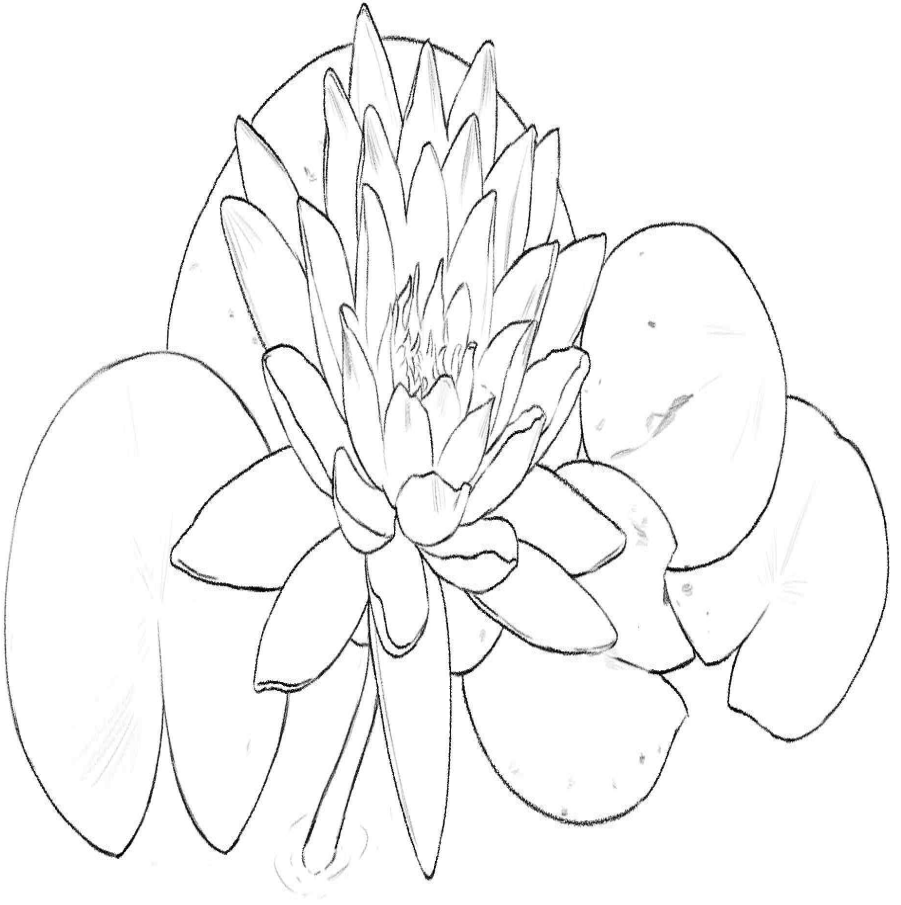
*Nelumbo nucifera*

개화시기 7~8월 분포 인도·아시아 남부 등지 꽃말 청렴, 청정

연꽃은 얇은 연못이나 늪의 물속에 자라는 수생식물로 뿌리 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는다. 꽃은 6~9월에 물 밖으로 나온 긴 꽃대에 1개씩 핀다. 꽃잎은 많고, 둥근 사각형에 노란색이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 같은 곳에서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이유로 옛날 선비들이 좋아하였다고 전해진다. 관상 가치가 높아 수변공원에서 연꽃을 대량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으며, 연근을 얻기 위해 논과 연못에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도 있다. 조례호수공원과 낙안읍성, 선암사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꽃은 흰색뿐만 아니라 분홍색과 자주색사이의 연꽃도 있다.







## 19. 나팔꽃

*Pharbitis nil*

개화시기	7~8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결속, 기쁜 소식, 허무한 사랑
------	------	----	----------------	----	----------------------

나팔꽃은 7~8월에 피며 푸른색을 띤 자주색, 흰색, 붉은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피어난다. 오전에 피었다가 점심 이후가 되면 시든다. 화관은 나팔모양과 닮아 나팔꽃으로 불린다. 흔히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지만 나팔꽃의 덩굴성이 강해 주변의 모든 것을 감고 올라가며 번식 속도가 빨라 우리 주변의 길가나 빈터에 주로 볼 수 있다. 나팔꽃의 원산지는 인도이며, 귀화식물이다. 우리나라 토종 나팔꽃으로 '매꽃'이 있다. 관련된 설화로 옛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화공이 있었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은 호색가였는데 화공의 아내를 탐하여, 그녀에게 엉터리 죄를 씌워 잡아들이고 자신한테 시집오면 잘살게 해주겠다며 유혹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않고 옥에 갇혀 지내는데, 아내를 기다리던 화공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아내가 갇혀있는 감옥창가에 물어두고 아내를 기다리다 죽게 된다. 이후 그림을 묻었던 곳에서 한줄기 덩굴이 올라와 나팔모양의 꽃이 피웠고, 아내는 그 꽃이 남편의 영혼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 20. 상사화<sup>12)</sup>

*Lycoris squamigera*

개화시기 7~9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꽃말 이루어질 수  
등지 없는 사랑

중국 원산이며 원예식물로 들여와 민가 주변에 키우거나, 야생화하여 골짜기나 냇가를 따라 그늘지고 축축한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꽃은 8~9월에 연한 분홍색의 꽃이 피어난다. 선암사나 송광사, 낙안읍성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관상용으로 심는다. 흔히 꽃무릇과 상사화를 혼동하여 불리는데 꽃무릇은 붉디붉은 색의 꽃으로 꽃이 진 뒤 잎이 돌아나는 반면 상사화는 잎이 진 뒤 꽃이 피어난다. 관련된 설화로 옛날에 금슬이 좋은 부부에게 늦둥이 딸이 있었다.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며 백일동안 탑돌이를 했다. 이 절의 큰스님이 늦둥이 딸을 연모하게 되었으나 중의 신분인지라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 그녀가 불공을 마치고 돌아가자 스님은 그리움에 사무쳐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게 되고, 스님의 무덤에 잎이 진 후 꽃이 피었다. 세속의 여인을 사랑하에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했던 스님을 닮았다하여 꽃의 이름을 상사화라 짓게 되었다.



12) 원문은 '부활꽃'으로 표기



## 21. 베롱나무<sup>13)</sup>

*Lagerstroemia indica*

개화시기 7~9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등지 꽃말 부귀, 응변, 꿈

베롱나무는 백일홍이라고도 불리지만 국화과의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베롱나무로 칭하는 게 좋다. 나무 가지 끝에 달리는 꽃은 홍자색으로 피고 우리나라에서는 7월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달려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질나무, 간지럼나무라고도 불렀는데 간질나무는 간지럼을 잘 타는 나무라는 뜻으로 하얀 무늬를 조금 굵으면 나무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간지럼을 타는 것 같아 붙여진 별명이다. 베롱나무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뜰에 가득한 꽃이란 의미로 '만당화', 잎의 이름은 '자미화'라 불렀는데 이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궁궐인 자미궁 뜰에 심는 귀한 꽃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13) 원문은 '백일홍나무'로 표기



## 22. 구절초<sup>14)</sup>

*Chrysanthemum sibiricum*

개화시기 7~10월 분포 한국·중국·러시아 등지 꽃말 가을 여인, 순수

구절초는 꽃송이의 중앙은 노란색이며 주변으로 흰색과 연분홍색의 꽃잎이 달린다. 꽃은 7~11월에 햇볕이 잘 드는 산지 숲 가장자리의 바위 지대부터 능선부의 바위 지대에 자란다. 군락을 이루며 자라나 꽃들이 한곳에 많이 피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절초는 5월 단오에는 줄기가 다섯 마디가 되고 음력 9월 9일에는 아홉 마디가 되는데, 즉 구절이 되면서 이때 이 꽃을 잘라 쓴다고 하여 구절초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순천에서는 송광사와 선암사, 조계산 등에서 볼 수 있다. 구절초는 꽃을 말려 차로 마시기도 하며, 술로도 담가 먹기도 한다.



14) 원문은 '산국화'로 표기





## 23. 산수국

*Hydrangea serrata*

개화시기 7~8월 분포 한국·일본 등지 꽃말 변덕, 변심, 고집

산수국은 산골짜기나 돌무더기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꽃은 희고 붉은색이 도는 하늘색이다. 열매는 9~10월에 익으며 이 시기 꽃 색은 갈색으로 변해 있다. 이처럼 꽃 색이 변하는 것은 꽃이 아닌 것이 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희고 붉은색이지만 종자가 익기 시작하면 다시 갈색으로 변하면서 꽃줄기가 뒤틀어진다. 그리고 정원이나 관상용으로 재배를 한다. 관련된 설화로 옛날 어느 마을 꽃을 좋아하는 처녀가 있었다. 원님의 아들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원님의 아들은 처녀에게 꽃나무 한 그루 선물했다. 그런데 꽃의 색이 바뀌어 불기하다 생각했는데, 원님의 아들은 죽게 되었고 이후 4번의 혼인을 했지만 모두 죽어 집을 떠났다. 그 집에 잡초가 무성했지만 해마다 꽃이 피는데 그것이 산수국이다.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the name of the plant or provide a description.

## 24.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개화시기 6~7월 분포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지 꽃말 진심, 변덕, 처녀의 꿈

수국은 정원이나 화단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떨기나무이다. 잎은 마주나며,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6~7월에 피는데 연한 자주색, 푸른색, 연한 붉은색이 있다. 많은 원예품종이 있으며, 그늘 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관련된 설화로 옛날에 '수'라는 남자아이와 '국'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국은 수를 사랑했으나, 수는 국을 사랑하지 않았다. 국은 항상 구애를 하며 수를 쫓아다녔는데 수는 그런 국이 싫어 멀리했다. 하루는 수가 국을 따돌리기 위해 산으로 갔다. 국은 수를 쫓아가다 절벽에서 미끄러졌는데 수는 절벽에 매달린 국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국은 수의 손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죽게 되어 자신이 국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후에 수와 국의 무덤에 같은 꽃이 피어나고 이를 수국이라 불렀다고 한다.







山  
水  
菊



PLATE XXV

# 가을

25. 맨드라미

26. 고추

27. 닭의장풀

28. 물봉선

29. 채송화

## 25. 맨드라미<sup>15)</sup>

*Celosia crist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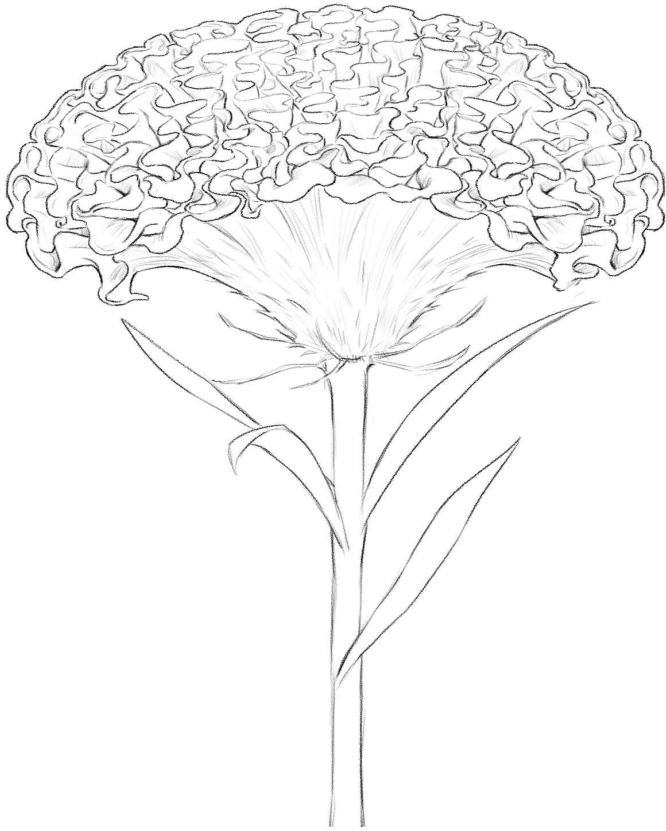
**개화시기** 7~8월 **분포** 전세계 분포 **꽃말** 치정, 과기, 영생  
시들지 않는 사랑

민가나 공원의 화단에 관상용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 꽃은 7~8월에 피는데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으로 다양하며, 꽃이 뽀뽀하게 달린다. 열대아시아 원산으로 우리나라 전역 및 전 세계에서 식재한다. 관련된 설화로 김씨의 이웃에는 최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최씨가 가장 부러워 하는 것은 김씨의 황금빛 수탉이었다. 최씨는 장기로 내기를 하여 수탉을 가져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이기게 되는데, 화가 난 최씨는 자신의 수탉과 황금수탉을 싸움시켜 황금수탉을 죽이게 된다. 김씨는 울면서 황금수탉을 집 마당 구석에 묻어 주었다. 다음날 마당을 쓸다가 보니 꽃이 하나 피어있었는데, 그 꽃은 황금수탉의 벼슬 모양을 한 꽃이었다.



15) 원문은 '금계화'로 표기





## 26. 고추

*Capsicum annuum*

개화시기 6~9월 분포 한국·온대지방· 열대지방 등지 꽃말 진실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로 매운 맛을 내기위해 많이 재배되고 있다. 고추도 꽃이 피는데 여름에 잎겨드랑이에서 흰 꽃이 1개씩 밑을 향해 달린다. 6~9월에 꽃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순천 낙안읍성에서 볼 수 있으며, 순천 원도심 주택가에서도 고추를 기르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고추 꽃은 작고 예쁘지만 고추 꽃에는 진딧물과 총채벌레 등 병충해가 잘 생기기도 한다. 이는 열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고추의 품종은 다양한데 서로 다른 품종이 바람에 의해 수정되어 쉽게 교잡종을 만든다. 전세계로 많은 품종이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지방에 따라 여러 품종이 생겨나 약 100여종에 이른다.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label or caption.

## 27. 닭의장풀<sup>16)</sup>

*Commelina communis*

개화시기 7~9월 분포 한국·중국·일본 꽃말 순간의 즐거움, 그리운 사랑  
 우수리 강 등지

닭의밀씻개라고도 불리며 전남 방언으로 달구개비로도 불린다. 길가나 풀밭, 냇가의 습지에서 흔히 자란다. 꽃은 7~8월에 하늘색·파란색으로 피어난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른 아침에 피었다가 한 낮이면 시들고 만다. 순천 조계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설화로 마을에 힘 좋은 두 남자가 매일 힘자랑을 했다. 바위 멀리 던지기, 바위 들어올리기 등을 겨뤘으나 쉽사리 결판이 안나 다음 날 첫닭이 울 때 당에서 바위를 안고 깊이 가라앉기로 승부를 가르자고 했다. 죽음을 각오한 이 승부에 부인들은 첫 닭이 울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썼지만, 첫 닭이 울면서 부인들은 애가 타서 죽었다.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닭의장풀이라고 전해진다.



16) 원문은 '달개비'로 표기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label or caption.

## 28. 물봉선<sup>17)</sup>

*Impatiens textorii*

개화시기	8~9월	분포	한국·동북아시아 등지	꽃말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	------	----	----------------	----	----------------

낮은 산지의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 무리지어 자란다. 꽃은 8~9월에 피고 홍자색이며, 꽃이 흑자색인 가야 물봉선과 흰색인 흰물봉선이 있다. 물봉숭, 물봉숭아라고도 부른다. 순천 낙안읍성, 선암사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옛날부터 부녀자들이 손톱을 물들이는 데 많이 사용했다. 벌레나 뱀이 싫어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병충해 예방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을 심은 밭 주변에 심기도 하였으며, 장독대 주변에도 많이 심었다고 한다. 물봉선의 줄기는 해독과 소독작용도 있다하여 뱀에 물렸을 때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17) 원문은 '들봉선화'로 표기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label or caption.

## 29. 채송화

*Portulaca grandiflora*

개화시기 7~10월 분포 한국·남아메리카·꽃말 천진난만함  
남아시아 등지 가련함 순진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주로 관상용으로 심는다. 한해살이 식물로 마당의 한 편 또는 담벼락 아래 주로 심었으며,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노지에 심어놓으면 씨앗이 떨어져 다음해 싹이 나와 다시 꽃을 피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송화의 꽃잎은 끝이 파지고 붉은색·노란색·흰색 등 다양한 색과 더불어 겹꽃도 있다. 꽃은 7~10월에 피고 맑은 날 낮에 피며 오후 2시경에 시든다. 관련된 이야기로 옛날 담벼락 위나 마당 한구석에 피어나서 개와 고양이가 짓밟고 지나가는 볼품없는 꽃이었지만 예쁜 색깔과 소나무 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라 하여 나물'채', 소나무'송'자를 써 채송화(菜松花)라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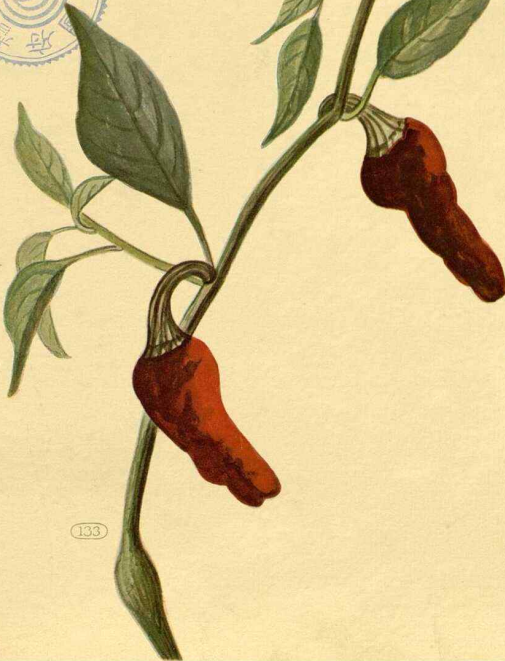


참깨 (胡麻)



134

(五) 苦椒



133



도끼蕎麥



135

PLATE XXXVIII

# 겨울

## 30.동백나무

### 30.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개화시기 12~4월 분포 중부이남 지방·서해 남해·울릉도 등지 꽃말 고결한 사랑

동백은 겨울에 꽃이 핀다 하여 동백(冬柏)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조계산, 선암사 등에서 볼 수 있다. 울릉도와 남·서쪽 해안 산지에 자생하고 있다. 동백에 얽힌 이야기로 남편과 아내의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 대청도에는 남쪽 섬에서 온 청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청년은 대청도의 처녀와 결혼하여 살았는데 어느 날 고향에 갈 일이 생겨 아내를 남겨두고 섬을 떠나게 되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남쪽에서 피는 동백의 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남편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뒤늦게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무덤에 엎드려 울었는데 그때 아내가 부탁한 동백씨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동백이 대청도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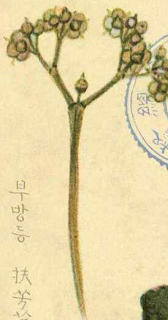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likely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the name of the flower or provide a description.

斗斗子茶 对合花



14



斗斗子茶 扶芳之藤



15



16

斗斗子茶

PLATE 1

## 참고자료

### 이미지출처

-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개나리,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진달래, 원작자: 김진석,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할미꽃, 원작자: 정종덕,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복숭아꽃, 원작자: 유태철,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뱀딸기,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각시붓꽃,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민들레,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동의나물,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모란,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은방울꽃, 원작자: 현진오, 유태철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호랑가시나무,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감나무,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산수국, 원작자: 유태철,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수국, 원작자: 유태철,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닭의장풀, 원작자: 유태철, 서민환,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물봉선, 원작자: 유태철,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채송화,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동백나무, 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자: 국립생물자원관
-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출처: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